2020년 창간호(1호)
2020. 6. 22.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 서비스

격주 리포트

포스트 코로나, 치료 중심의 글로벌 의료관광 변화 예상

블록체인 기술이 의료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현황 및 정책 동향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 창간호에 부쳐

코로나 19라는 펜데믹 사태는 글로벌 의료시장에 큰 타격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에서는 다양한 대응 전략들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의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해 '올해의 의료관광 목적지 대상'(IMTJ 주관)을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으며, K-방역과 함께 세계 의료관광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한 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각국의 의료관광시장 현황 및 정책동향, 주요 이슈 등 유용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격주 리포트」의 발간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새로운 소식지 글로벌 의료서비스 격주 리포트를 통해 의료기관과 종사자와 국민, 정부 등 고객들에게 조금 더 신속하고 다양한 글로벌 의료서비스의 소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06.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권 덕 철

글로벌 의료서비스 격주 리포트

Contents

핵심 이슈

1 포스트 코로나, 치료 중심의 글로벌 의료관광 변화 예상 ····· 04
2 블록체인 기술이 의료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 10
3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현황 및 정책 동향 ····· 13

글로벌 동향

1 멕시코 보험업체, 미국 의료관광객 대상의 신규 자동차보험 상품 출시 ····· 16
2 2027년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규모 2천79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 ····· 16
3 코로나바이러스가 향후 미국인 의료관광에 미치는 영향 ····· 17
4 태국 의료관광 인바운드 소비자시장 분석 ····· 17
5 코로나바이러스로 의료관광 관련 업체의 90% 운영 잠정 중단 ····· 18
6 원격의료·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의료관광 부문의 지형 변화를 예고 ··· 18
7 태국,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입국 우선권 부여 예정 ····· 19
8 중국, '하이안 보아오르청 국제의료관광 시범지구 조례' 승인 ····· 19

「이슈 리뷰」

포스트 코로나, 치료 중심의 글로벌 의료관광 변화 예상

코로나 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험과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와중에,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장을 예측했던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가도 위기를 격고 있음. 하지만 K-방역과 함께 한국의료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이제는 코로나 이후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의료를 찾는 발길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수립 및 내적 인프라 · 역량 강화 등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유치기획팀장 김 희 정

포스트 코로나 시기 의료관광 시장의 변화 전망

India Med Today(2020.5.7.)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의료관광 시장이 아래와 같이 주요 7가지의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질환 치료 중심의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해외 이동이 금지되었다가 해소되면서 미뤘던 수술 등 복잡성 질환 치료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는 반면 미용 치료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아짐
- 지속적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개인별 맞춤 치료 수요 증가로 1인실 등의 전용 생활공간과 개인 맞춤형 교통수단, 관련 인프라 시설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선호할 것임
- 비자 발급을 위해 다수의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을 요구함에 따라 비자 처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 장거리 이동에 따른 리스크 부담으로 근거리 중심의 의료 인프라가 우수한 나라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지역별 소규모의 신생 의료관광 허브 등장 가능성 시사
- 환자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의료진의 방문 진료 및 의사들 간 지식 공유 활성화 기대
- 웨비나를 활용한 경험 공유 및 환자를 의뢰하는 의사들 간의 협력 체계 확립 기대
- 원격진료 및 원격상담이 주목받게 되며, 특히 원격상담은 의료관광의 부가 수익원으로 작용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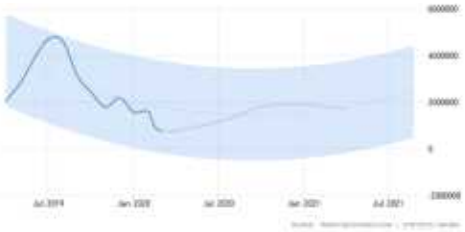
그리고, 이미 코로나 19 확산 이전에 발표된 의료관광 관련 주요 시장 보고서들도 시장 성장과 함께 암, 심혈관 치료 등 질환 치료를 위한 해외의료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을 한 바 있다.
Global Market Insights 보고서(2019.8월)에 따르면, 2018년 의료관광 시장은 190억 달러이며, 2019-2025년까지 연평균 6.5% 이상의 성장을 예측했다. 특히, 신체운동부족,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단이 심혈관질환의 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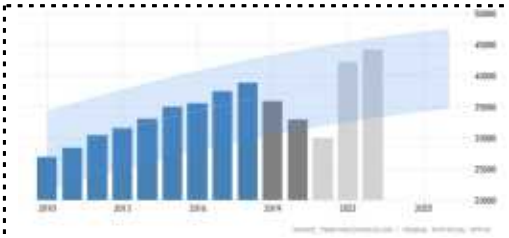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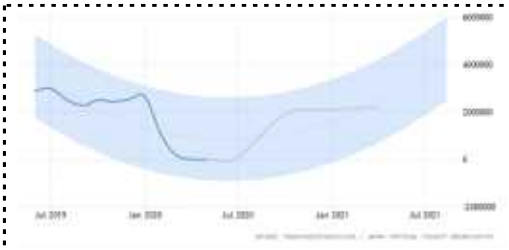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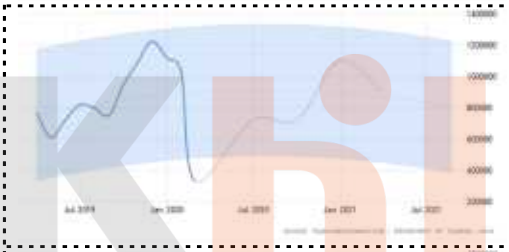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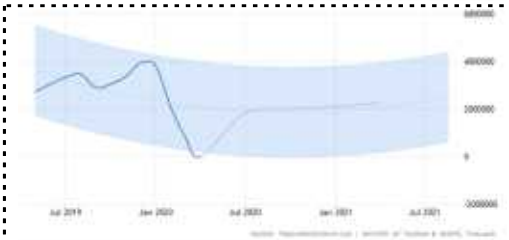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상동맥질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심혈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덧붙여, 의료관광 성장요인으로는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등장, 의료관광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제고, 각국 수술 절차에 대한 국제 표준화 추세, 해외여행 효과와 병행된 비용절감, 각국의 의료관광 관련 정부 정책의 확대를 꼽았다. 이와 유사한 전망을 하고 있는 Verified Market Research 보고서(2020.1월)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2018년 167.3억 달러에서 2026년까지 288.6억 달러에 달해 2019-2026년까지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Allied Market Research(2019.1월)는 세계 의료관광 시장을 2018-2025년까지 연평균 12.9%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암 치료 분야 급성장을 예측했다. 치과 치료, 미용 치료, 심혈관 치료, 정형외과 치료, 신경 치료, 암 치료, 불임 치료 등 의료관광 시장은 이미 세분화되어 있으며, 2017년 미용 분야가 의료관광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고, 자국에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양질의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관광을 찾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암 치료 분야는 2018-2025년까지 연평균 15.7%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암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간 치료가 병행되어야 해서 양질의 의료 환경에서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 주요 의료관광국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향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장을 예측했던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경쟁국가도 위기를 겪고 있고, 각국의 해외입국자들도 급격한 감소한 상황이다. 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각국의 해외입국자는 코로나 19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21년 2사분기 전후에 코로나 19 이전 규모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	해외입국자 현황 및 추이	20년 이후 예측 전망
캐나다		- 2020년 2월 1,595,707명에서 3월 760,461명으로 감소 - 20년 2사분기까지 115만명, 21년 210만명, 22년 235만명 예상

독일		- 2018년 3,881만명 - 2020년말까지 3천만명 예상 - 21년에는 4,210만명, 22년에는 4,420만명 예상
일본		- 2020년 5월 1,700명으로 전년대비 99.9% 감소 (1964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 - 20년 2사분기까지 75,000명 예상 - 21년 2,500만명 예상
인도		- 2020년 2월 1,015,632명에서 3월 328,462명으로 감소 - 20년 2사분기까지 72만명 예상 - 21년 125.5만명 예상
싱가포르		- 2020년 3월 239,885명에서 4월 748명으로 감소 - 20년 2사분기까지 131만명 예상 - 21년 162만명, 22년 167만명 예상
태국		- 2020년 3월 82만명에서 4월 0명으로 감소 - 20년 2사분기까지 180만명 예상 - 21년 393만명 예상

주요 의료관광 국가들은 코로나 19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기에 해소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우리 정부 및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새로운 대응책과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터키 문화관광부는 지난 5월 교통시설, 숙박시설, 식당 등에서 높은 보건위생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건강관광인증(Healthy Tourism Certification)'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건강관광(Healthy Tourism)은 병원

내 치료 및 수술 등의 의료관광, 온열시설 내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열관광, 요양치료센터의 노인 및 장애인 관광 등 광범위한 치료를 포괄하고 있다.

인도 헬스케어진흥재단은 6월에 인도정부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50억 달러 규모(연간 168만명 환자, 심장/정형/IVF/치과/이식/아유르베딕의학 중심)의 인도 의료관광이 국경 봉쇄 및 비자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한적으로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와 합의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화상상담을 통해 수술 전,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IMTJ 기사(2020.5월)에 따르면, 의료관광 전문가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국가 또는 병원의 의료관광 브랜드 노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 및 대처 이야기 등을 제공하여 의료소비자와의 긍정적 관계를 구축하고, 단순히 게시하는 것보다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접근을 하되, 의료브랜드 성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의료소비를 권장할 때가 아님을 인식하고, 일상 활동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국가 또는 병원의 의료브랜드를 상기시킬 수 있는 메시지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태국 관광청은 지난 5월부터 포스트 코로나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생력 증진,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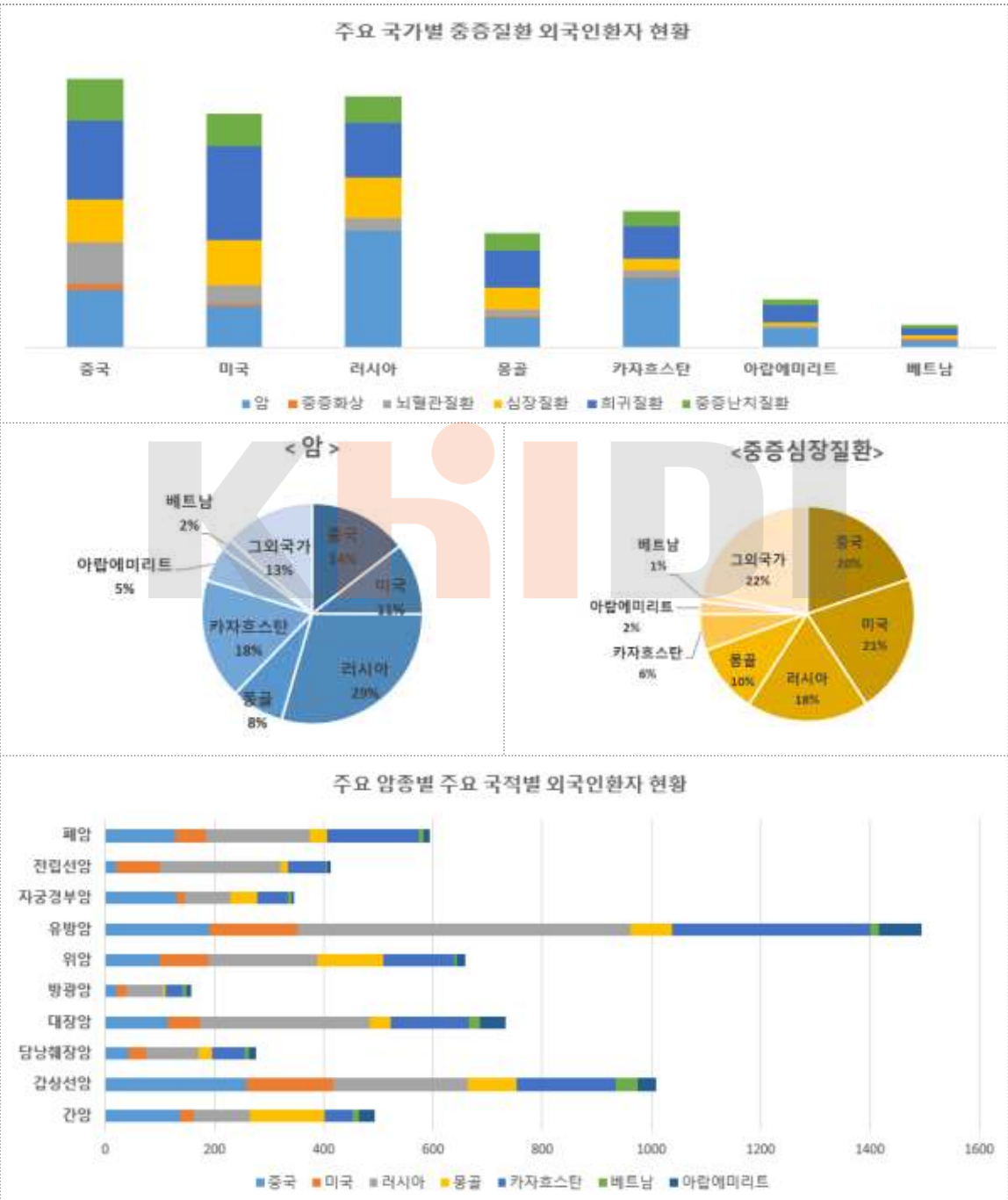
▶ 외국인환자 유치의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준비

코로나 이후, 침체된 외국인환자 유치의 재도약 및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 지금은 내부 역량을 키우고 환자유치를 위한 전주기 인프라를 개선하며, 실효성 있는 마케팅 전략을 재구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치료 중심의 중증환자 유치를 위해 타깃국가별 잠재고객 대상 소통 기반 정보 제공

한국을 방문한 중증질환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에 따라, 의료기관이 잘 하는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진의 정보, 치료성과 및 우수성, 관련 연구성과를 영어 등 외국어로 홍보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축적하고 번역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매체가 아니라 현지 국가별 선호도가 높거나 다수가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K-방역, 한국의 건강한 일상생활 팁 등을 매개로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료기관 강점, 치료 강점 및 브랜드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 주요 국가의 암 등 중증질환 외국인환자 현황 〉



▶ 보다 안전한,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찾는 고객을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성, 국제의료체계 등의 각 영역별 수준 진단 및 개선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기관 자체의 환자불만 접수현황 등을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차원의 개선 노력 및 관련 투자가 필요하다. 자체 진단이 어렵다면, KAHF(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중 사전컨설팅, 모의평가 등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수준을 진단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국제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해외 진출 의료기관 및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의사들과의 사전사후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 진료 받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경과를 살피는 등의 사후관리(Post Care) 시행

기관별로 기 협력이 구축된 각국 현지 병원과의 사전사후관리 분야 협력이 어렵다면, 각국에 진출한 의료기관, 현지 한국인 의사들과의 사전사후관리 협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해외에 있는 한국 의료기관 및 한국인 의사들과 협력하다면, 의사소통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신규 환자 대상으로 현지 의사와 사전관리(Pre Care)를 시행하여 입국 전 조치를 상호 협력하고, 현지 거점 의료인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K-방역과 함께 한국의료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 정부 관계자 및 외국인환자들은 한국의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기를 원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강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근거에 기반한 홍보 준비가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환자유치와 진료에 집중했었다면, 지금은 잠시 내부의 역량을 점검하고 국제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제고할 때이다.

본 내용은 해외 주요 동향 요약 및 작성자 개인의 견해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관련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치기획팀 김희정 팀장 (hjlily@khidi.or.kr) -

「포커스 동향 요약」

블록체인 기술이 의료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원문 : Rejeb, A., Keogh, J. G. and Treiblmaier, H. (2019) "The Impact of Blockchain on Medical Tourism", WeB2019 Workshop on e-Business, December 14, Munich, Germany.)

해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과 더불어 관광산업에 다양한 신기술이 통합되고 있는 추세. 그 중 환자에게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심층 지식을 제공하고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툴로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기 시작. 의료관광 부문에 이를 적용할 경우, ▲중개의존도 완화(Disintermediation) ▲신뢰 및 투명성 강화 ▲상호운용성 증진 ▲개인정보보호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의료관광 산업의 성장 동인

의료관광은 의료와 관광 서비스를 동시에 홍보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계획·유지·회복시키는 데에 주력

의료관광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관광이 아닌 '의료 서비스' 측면이며, 온라인 검색을 통해 신뢰할 만하고 안전하며 비용 효과적이면서도 시기적절한 의료 옵션 및 서비스를 최종 결정

- (적절한 비용) 고객들은 의료관광을 결정할 때 해외여행의 적절한 비용, 유리한 환율, 목적지 국가의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국가 간 기술 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적절한 치료비'가 의료 관광객 유입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비용과 관련해, 척추수술의 경우 '12년 기준 △미국 7만 달러 △태국은 4,700 달러(5일 입원에 1인실 제공) 소요
- (접근성·가용성) 의료관광은 자국 내 해당 의료 서비스의 부재 또는 대기 시간, 이식 장기 부족 등으로 치료가 지연될 시 고려되는 대안적 옵션
  - 특히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고객 대다수는 자국 내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의료관광을 결정했으며, 일본의 다수 기업들은 직원 정기건강검진을 인접국에서 진행

의료관광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성에 주목

관광 부문에 소비자중심 기술이 다수 도입되었으며, 특히 정보기술은 해외 민간병원들이 제공하는 치료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을 제공

▸ 또한 판매관리시스템(POS), 전자건강기록(EHR), 목적지 관리조직(DMO) 등 의료관광 산업 통합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여러 정보시스템이 있음

* 목적지 관리조직(DMO, 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은 관광지역 내에서 관계자의 조정 하에 관광 지역 전략 수립, 관광 자원 관리, 품질 향상 등 관광지역 조성 전반을 담당하는 전문조직

▸ 그 외 관광부문에서 주목받는 신기술로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분산 장부'로 정의되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들 수 있으며, 주요 특징으로는 불역성, 투명성, 보안성

– 특히 의료관광 산업에 적용될 경우 중개의존도 완화(Disintermediation), 신뢰 및 투명성, 디지털화 및 상호 운용성, 개인정보보호 면에서 잠재성이 클 것으로 기대

블록체인: 의료관광의 중개의존도 완화(Disintermediation)

의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지만 관광객들이 해외 의료시설의 품질·적합성·이점에 대한 평가 역량 및 기술적 지식이 결여된 까닭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개업체가 출현하기 시작

▸ 의료 중개업체의 역할로는 △환자와 의료공급자 연결 △특수장비·처방약품 허가증·간호사 동반 여행 등 특정 여행절차 처리 △비자 업무△항공권·숙소 예약 △치료 및 사후 관리 등

▸ 중개업체의 역기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패키지 가격이 실제 치료비를 크게 상회 △특정 의료공급자와의 제휴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제한 △특히 중개업체가 특정 서비스에 특화되어 있을 경우, 환자를 부적절한 의료공급자에게 소개할 가능성 △치료가 실패해도 의료 공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 등

이 같은 환자와 의료 중개업체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유망

▸ 구체적으로, 동 기술은 △외국 의료기관과의 직접 소통을 지원함으로써 환자측에서 의료기관의 자격·인증·시술 비용 확인이 가능 △불필요한 비용 제거 △의료관광 전반에서 중개업체에 대한 환자의 의존도 감소 △부가가치 없는 중개업체의 힘이 감소하거나 제거됨으로써 의료관광 인프라 능률화

블록체인: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

의료관광 웹사이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은 의료 서비스 및 비용과 관련해 의료관광 전문 업체나 의료시설에 직접 문의하기보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을 선호

▸ 따라서 의료관광 공급자들은 잠재 고객의 신뢰 획득을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기반해 당사의 자격증 및 시술 전후 서비스, 환자 안전 전반 등에 관해 광고

– 그런데 온라인상의 의료 정보는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흔하며, 일부 웹사이트는 리스크가 높은 시술 혹은 非인가 기관과 관련된 의료관광 패키지 구매를 유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경우, 환자 신뢰 및 정보 투명성이 더욱 강화

- 고객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해당 기관에 대한 '검증된 정확한 세부 정보'를 받게 됨으로써 정보 기반의 합리적 결정이 가능
  - 위 정보에는 의료진 이력, 해당 기관의 인가 여부, 서비스 혹은 시술 자격증 등이 포함
-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非의료적 측면의 신뢰성 있는 심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는 의료관광 계획 단계부터 정보에 기반해 결정 △의료관광 공급자는 브랜드 가치 구축 및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

블록체인: 디지털화 및 상호운용성 증진

전자건강기록(EHR)이 각기 다른 의료시스템에 '갇혀(siloed)' 의료 정보 접근성을 저해하는 등, 의료 시스템의 운용 메커니즘은 상호운용성에 있어 한계가 뚜렷

- 현재로서는 EHR의 통합 관리 시스템의 결여로 인해, 외국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가 종결된 후 환자의 의료정보를 새로운 의료 공급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

반면 블록체인 기술은 환자의 병력 전체 추적, 의료 문서의 정교한 관리, 데이터 접근에 대한 제어력 강화 등, '환자중심의 정보 통제 모델'을 허용

-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관광 생태계는 외국 환자들에게 △당사자의 건강 데이터에 대한 제어 수준을 제고 △해외 의료 공급자와 현지 의사 간 소통 증진에 기여
  - 그 결과 기존 시스템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상호운용성 문제가 해결되어 △의료관광객·해외 의료공급자·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국경을 초월해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교환 △귀국 후에도 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
- 무엇보다도 블록체인 아키텍처는 환자에게 본인의 암호화된 건강기록에 대한 안전한 접근성 및 제어력을 보장하며, 특히 블록체인의 불역성(Immutablility)'이라는 특유의 특징은 환자 의료기록의 변경, 삭제, 여타 정보 추가를 불허
- 그 외, 가상화폐 기반의 지불방식은 신속·안전한 결제 및 환전 비용 최소화를 보장

블록체인: 개인정보보호

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조사에 따르면, 치료비용에 이어 중요한 항목은 '치료의 프라이버시 및 비밀보장'이었으며, 블록체인 시스템은 설계 초기부터 개인정보보호 메커니즘을 탑재

- 암호화 신원체계는 익명과 불연계성(Unlinkability)에 기반해 기밀성을 제공하며, 환자는 본인 정보에 대한 공개 범위(부분적·전체적·일시적·영구적·제한적·비제한적 공유)를 스스로 결정

[Middle East Medical, The Impact of Blockchain on Medical Tourism, 2020.03.23.]

「포커스 동향 요약」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현황 및 정책 동향

(원문 : WTTC, MEDICAL TOURISM: A PRESCRIPTION FOR A HEALTHIER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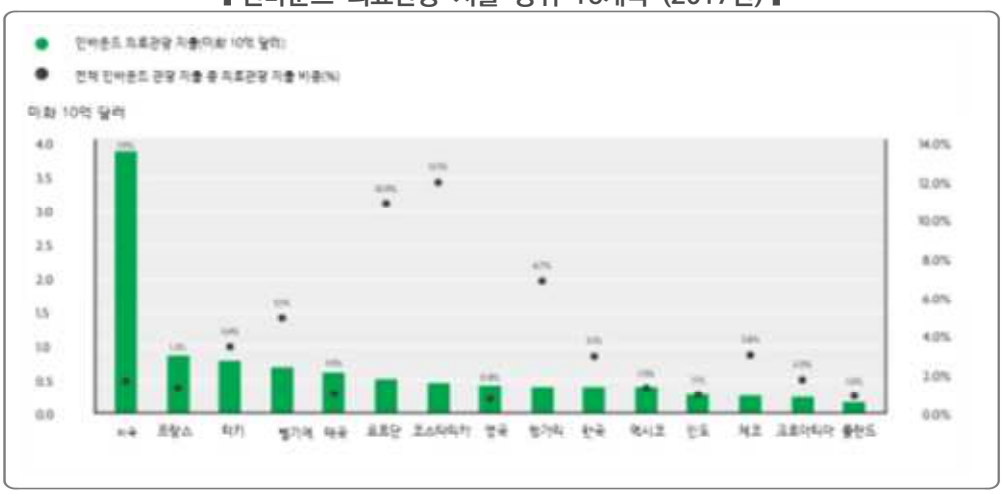
'17년 기준 글로벌 의료관광 지출 규모는 총 110억 달러로 2000년 대비 358% 증가했으며,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의료관광의 최대 시장은 미국. 인바운드 의료관광 상위 15개국에 터키·태국 등 개발도상국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저렴한 비용 및 정부의 적극 지원이 주요 원인. 그 중 인도의 의료비자 정책은 외국 의료관광객 유인을 위한 성공적 전략으로 평가

글로벌 인바운드(Inbound) 의료관광 시장

글로벌 의료관광 지출은 2000년 24억 달러 규모에서 '17년 110억 달러로 358%(연평균 9%) 성장했으며, 전체 관광 지출 중 의료관광 지출 비중은 2000년 0.6%, '17년 1.2%

- '17년 기준 인바운드 의료관광 지출이 가장 큰 시장은 미국으로, 총 지출 규모는 39억3천만 달러(글로벌 의료관광 지출의 36%를 차지)
- 이어서 프랑스 8억 달러(7%), 터키 7억6천만 달러(7%), 벨기에 6억4천만 달러(6%), 태국 5억9천만 달러(5%), 요르단 5억 달러(5%), 코스타리카 4억5천만 달러(4%)의 순
- 터키의 실적이 우세한 이유로는 △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투자 △저비용의 서비스 △고학력의 인적자원 △마케팅 캠페인에 역점 등

▌인바운드 의료관광 지출 상위 15개국 (2017년)▐



한편 인바운드 관광 지출 중 '의료관광 지출 비중'은 미국 1.9%, 프랑스 1.3%, 코스타리카 12.1%, 요르단 10.9%, 헝가리 6.7%로 나타났으며, 상위 국가에 개발도상국이 다수 포함

- 2000년도 이란의 자료에 따르면 인바운드 관광 지출 중 의료관광 지출 비중이 무려 18%로 이는 정부의 적극 지원에 따른 결과이며, '국제의료관광저널(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에 따르면 '17년 이란은 해당 권역 내 13개국과 의료관광 촉진 협정을 체결
- 한편 코스타리카의 여행 업계는 '태양과 수술(sun and surgery)' 패키지를 통한 관광객 유인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인도는 '의료 비자(medical visa)' 정책 및 표적화된 마케팅을 전개

글로벌 아웃바운드(Outbound) 의료관광 시장

'17년 기준 미국인들의 아웃바운드 의료관광 지출 규모는 23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

- 이어서 2위 쿠웨이트 15억6천만 달러, 3위 나이지리아 7억8천만 달러, 4위 네덜란드 6억7천만 달러, 6위 오만 4억9천만 달러, 11위 이집트 2억9천만 달러, 14위 몰디브 1억2천만 달러

▌아웃바운드 의료관광 지출 상위 15개국 (2017년)▐

아웃바운드 관광 지출 중 '의료관광 지출 비중'은 미국 1.7%, 쿠웨이트 12.7%, 나이지리아 13.5%, 오만 21%, 이집트 13.6%, 파나마 14.5%, 몰디브 39.8% 등

- 쿠웨이트의 아웃바운드 의료관광 지출이 높은 이유는 정부의 해외 시술 지원 정책에 기인했으나, 현재는 해외 의료관광 축소 및 의료 민영화를 위한 신규 규정을 시행하는 중
- 나이지리아는 인구 증가 및 그에 따른 의료 시스템의 압박 증대로 해외 의료관광 지출이 강세

의료관광은 대개 고소득 국가의 환자들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중위 혹은 저소득 국가로 여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 보다 복잡한 시장 모델이 부상 중

- 예를 들어 에스와티니(Eswatin)·몰디브·버뮤다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해외 의료관광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체 아웃바운드 관광 지출 중 의료관광 지출 비중은 각각 66%, 40%, 36%
- 특히 몰디브는 '12년 '보편적 건강보장(UHC)'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국 내 서비스가 불가능한 치료를 해외에서 받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
- 동 정책을 시행한 첫해 27만6천여 명(전체 인구의 84%)이 해외로 나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이로 인한 정부 지출은 1,160만 달러에 육박

의료관광 정책 동향

의료관광에 대한 각 정부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및 인증제도, 비자 정책 수립, 표적화된 마케팅 전략 개발 등이 필요

- (규제·인증)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州는 의료관광 진흥, 환자 권리보호, 의료공급자 인증 보장을 위해 지국 내 최초로 헬스 및 웰니스 관련 공공정책을 시행 중
  *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의 인증을 받은 태국 의료기관은 68곳, 터키는 43곳
- (비자) 인도의 '의료 비자' 정책으로 160여 개국에서 의료 비자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 외국인 의료관광비자(FTAs) 발급 건수는 '15년 23만여 건에서 '17년 49만여 건으로 증가
  * 한편 이란도 자국의 의료센터로부터 승인서를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의료비자를 발급
- (인력 훈련) 외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JCI, 멕시코 성형수술협회(Mexican Association of Plastic Surgery) 등은 다양한 자원을 제공해 의료 인력의 질을 제고
  * 영국 의료관광협회(MTA) 및 온라인관광훈련(OTT)은 파트너십을 체결해 의료관광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제공
- (표적화된 마케팅 전략)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위원회(MHTC)는 흠 없는 의료관광 경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외국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미얀마, 베트남,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
  *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는 아부다비 클리브랜드클리닉(Cleveland Clinic Abu Dhabi) 및 다수 병원들이 에티하드항공(Etihad Airways)과 의료관광 패키지 관련 협정을 체결
- (투자) 터키의 상무부 및 재무부는 의료부문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
  * 두바이보건청(DHA)은 '13년 의료관광 성장을 위한 27개년 계획을 발표해 현재 추진 중
- 이어서 2위 쿠웨이트 15억6천만 달러, 3위 나이지리아 7억8천만 달러, 4위 네덜란드 6억7천만 달러, 6위 오만 4억9천만 달러, 11위 이집트 2억9천만 달러, 14위 몰디브 1억2천만 달러

[WTTC, Medical Tourism: A Prescription for a Healthier Economy, 2019.11.18.]

1 멕시코 보험업체, 미국 의료관광객 대상의 신규 자동차보험 상품 출시

의료관광 정보업체 '국경 넘는 환자들(Patients Beyond Borders)'에 따르면, '20년 약 30만 명의 미국인들이 멕시코의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

* 동 기관에서 '19년에 발표한 '저렴하면서도 세계적 수준의 의료관광' 지침에 따르면, 멕시코(치과치료)·터키(모발이식)· 인도(고관절 재건수술)·이스라엘(불임치료)·헝가리(페이스리프팅) 등지로 의료관광을 떠난 미국인의 수는 약 200만 명

▸ 이에 따라 '멕스프로(Mexpro)'를 비롯한 멕시코의 보험 업체들은 미국 의료 관광객에 특화된 신규 자동차 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

▸ 멕스프로의 '멕스비지트(MexVisit)' 플랜의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제공
- '의료 후송(Medical evacuation)' 항목도 보장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즉 차량 운행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 50만 달러를 제공
- 그 외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라이브 사례 모니터링 연락센터(Live case monitoring contact center)'의 법률 지원도 포함(멕스프로 웹사이트 제공)

[Newsweek, 2020.01.27.]

2 2027년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규모 2천79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

시장정보 조사기관 '리서치엔마케츠(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21.1% 증가해 '27년 2천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저비용의 고품질 서비스를 이유로 태국을 찾은 의료관광객 수는 '18년 기준 약 280만 명
- 태국은 '국제의료연구센터(International Healthcare Research Center)'의 의료관광 인덱스에서 '16년 종합 18위에 올랐으며, 시설 및 서비스 품질 항목에서는 13위를 차지
- '범룽랏국제병원(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은 아시아 최초로 JCI 승인 및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까지 JCI 승인을 받은 '민간병원'은 53여 곳에 불과

▸ 한편 싱가포르, 콜롬비아, 대만, 스페인도 의료관광 종착지로서 급성장
- 위 4개국은 외국인 환자를 위한 첨단의료 인프라 및 숙련된 인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료관광이 국가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

▸ 국가별 강세를 보이는 부문은 태국은 성형수술, 인도 심혈관수술, 브라질은 치과수술 등

[Yahoo Finance, 2020.04.09.]

3 코로나바이러스가 향후 미국인 의료관광에 미치는 영향

'국경 넘는 환자들(PBB)'에 따르면 의료관광을 통해 치료비의 20-80%가 절감되며, 특히 인접국 멕시코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40-65%의 비용을 절감

▸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경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3월 기준 예약 90%가 취소됨
- '20년 올해 140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관광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3월 기준 10만 명의 환자들이 의료관광 예약을 취소 △3분기에는 50만 명이 취소할 것으로 추산

▸ 의료관광의 대안으로 국외자들을 포함해 미국 내 의료관광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치과 부문에서는 그 현상이 더욱 뚜렷

▸ 대유행병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 의료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경 밖에서의 치료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Newsweek, 2020.04.09.]

4 태국 의료관광 인바운드 소비자 시장 분석

'마이메드트레블(MyMedTravel)'이 '18년 의료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한 고객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인이 20%, 호주인 18%, 싱가포르인 10%, 영국인 7%의 순

* 조사 대상은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 관광객으로 한정하였으며, 그 외 언어 사용자 및 태국 거주 외국인은 제외

▸ 응답자의 62%가 방콕 소재 의료시설을 선택했으며, 푸켓은 15%, 파타야 11%, 치앙마이 7%
- 방콕이 선정된 주요 이유는 여타 지역 대비 의료시설 간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인하

▸ 방콕에서 집도된 성형수술 중 10대 인기 분야 중 쿨스컬핑(CoolSculping)과 가슴확대 수술이 각각 23%와 16%를 차지했으며, 특히 쿨스컬핑은 지방세포를 얼려서 서서히 죽이는 비침습성 시술로 지방흡입술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음
- 그 외 인기 시술로는 레이저 기반의 문신제거(12%), 지방흡입(8%), 얼굴여성화 수술(8%), 모발이식(7%), 코성형(7%), 보톡스(6%), 복벽 성형수술(7%), 성전환수술(6%)

▸ 의료시설의 인기도는 범룽랏병원(Bumrungrad Hospital), KTOP 클리닉, 시카린병원(Sikarin Hospital), 얀희병원(Yanhee Hospital)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가성비가 최고 장점

▸ 태국을 의료관광지로 택한 이유로는 △자국 대비 저렴한 비용 △짧은 대기시간 △높은 수준 △관광명소와의 결합 등

[The Thaiger, 2020.02.05.]

5 코로나바이러스로 의료관광 관련 업체의 90% 운영 잠정 중단

세계 각국의 환자들이 자국보다 의료 서비스가 저렴한 멕시코, 태국,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터키, 이란 등을 의료관광지로 선택

- 이들이 받는 시술은 체중감량, 치과, 성형, 암 치료, 불임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 다양
- 의료관광을 통해 의료서비스 비용을 20-80% 줄일 수 있으며, 특히 멕시코나 튀니지를 선택할 경우 비용절감 효과가 극대화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의료관광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현재 관련 업체의 90%가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

- '멕시코 바리아트릭센터(Mexico Bariatric Center)'에 따르면 예약 사례 중 90% 이상이 취소 또는 일정이 조정되었으며, 바이러스 치료제의 개발 및 가용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뉴노말(new normal)'로 굳어질 수도 있는 상황

[Medical Tourism Resource Guide, 2020.04.19.]

6 원격의료·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 의료관광 부문의 지형 변화를 예고

'국경 넘는 환자들(PBB)'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은 65억-87억5천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15-20%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서남아시아의 인바운드 시장이 성장을 견인

- 이 같은 추세 속에서 크로아티아의 관광 부서는 자국 방문객의 약 10%를 차지하는 의료관광객에 더욱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의료관광을 여름 휴가철 전후의 핵심 수익 상품으로 간주

디지털 기술은 통신·데이터 공유·보안 등에 발전을 가져와, 관광 경험을 다각도로 합리화

- (원격의료) 해외 의료인과 의료관광 잠재고객 간 사전 소통 방식이 상담전화, 이메일 기반에서 '화상진료'로 전환 중
  * 일례로 인도 코임바토레(Coimbatore)에 소재한 '스리 라마크리쉬나병원(Sri Ramakrishna Hospital)'은 원격진단 및 원격방사선과 프로그램을 구축해 △외국 의료진과 환자 간 가상 진단 및 소견 요청 가능 △해외에서의 치료를 모색하는 고객에게 리스크 및 비용 절감 유도
- (클라우드 기술) 의료관광의 신뢰 증진을 위해 해외 의료진의 환자 전자건강기록(EHR) 공유가 관건이지만, 기술적 복잡성 외 각 국가의 보건시스템의 특성상 데이터 공유를 기피
  *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글로벌 의료진 간 데이터 공유가 합리화될 수 있는데, 특히 클라우드에서 채택된 EMR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결합되어 △스마트폰에 가상 의료지갑을 생성 △환자 스스로 의료기록에 접근해 해외 의료진과 정보를 공유

[Medical Technology, 2020.01.08.]

7 태국,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입국 우선권 부여 예정

태국 관광당국은 7월부터 최우선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자국 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환자들이 될 것이라고 발표

- 당초 정부기관들은 최우선 대상은 태국의 배우자와 결혼하거나 가족의 재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해외에 고립된 영주권자와 외국인으로 제안
  - 그러나 이번의 새로운 발표는 인도주의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태국관광위원회(Tourism Council of Thailand)는 이르면 9월부터 태국과 중국 간의 제한된 지역 여행 협의중
  - 호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함께 머무는 동안 개인들을 감시하는 추적 앱을 고려 중
- 여행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을 재허용하는 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Pattya Mail, 2020.06.11.]

8 중국, '하이안 보아오르청 국제의료관광 시범지구 조례' 승인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 상임위원회는 6월 16일 제 20차 회의에서 '하이난 자유무역항 보아오르청 국제의료관광 시범지구 조례'를 승인

- '하이난 자유무역항 보아오르청 국제의료관광 시범지구'는 중국 최초의 국제 의료관광 서비스, 저탄소 생태공동체 및 국제기관 집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급 개발지구
  -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의료 투어 목적지 및 의료기술 혁신 플랫폼 건설을 추진
-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기관 및 과학연구기관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
  - 공립병원 브랜드, 상표, 특허, 기술, 서비스 관리 등을 지원하고 공립병원의 시범지구 입주를 장려
  - 시범 지역에 국제 선진 건강관리 기관, 의료 관광 및 건강관리 센터 입주와 육성을 지원
  - 시범 지역에 첨단기술 임상연구소, 주요 실험실 등 의학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고 세계 유명 의과대학과 연계해 의과대학을 설립
  - 의료성과 이전 및 전환을 위한 시범기지 건설을 지원하고, 산업화 생산기지, 의약기술 성과 이전 서비스 플랫폼 및 거래센터 설립을 장려

[中国新闻网, 2020.6.18.]

※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치기획팀(medicalkorea@khidi.or.kr) -